

## 2020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 1. 제시문 및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수년 전 발생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아랍의 독재자들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통제하고, 비상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금지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억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튀니지에서는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다. 대학 졸업 후 경제악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과일노점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경찰에게 노점단속을 당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에게 과일을 모두 빼앗긴 부아지지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2010년 12월 분신자살을 시도했고, 2011년 1월 4일에 숨지고 말았다. 이 사건은 튀니지 정권의 언론통제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냈고, 열흘 후인 1월 14일에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튀니지의 한 일간지 기사는 혁명 당시 기성 언론이 한 역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기성 언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역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벤 알리 정권은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렸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튀니지의 민주화 시위에 자극을 받은 이집트의 시민들도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온라인 기반의 SNS를 통해 집회를 제안하고 각종 행동강령을 주고 받았다.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발생한 사망자 소식과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 고문하는 동영상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블로거들을 구금했던 튀니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물론 전화망까지 차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에 시민들은 위성이나 우회회선을 통해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시민혁명을 이어나갔다.

〈나〉

- ① 뉴욕타임즈는 미얀마에서 탈출해 인도 서벵골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힌두교도들의 SNS를 통한 독설과 위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힝야족 이슬람교 난민인 A씨는 인터뷰에서 “많은 단체들이 SNS를 통해 우리를 악마로 만들어 반(反) 로힝야 정서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지난 15개월 동안 수차례 몰래 이사했는데, 힌두교도들에게 공격당하거나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로힝야 이슬람교도들은 식인풍습이 있고, 테러리스트나 반역자라는 거짓 주장이 SNS에 떠돌고 있으며, 인도를 떠나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게시물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SNS 업체가 수년간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들을 무시했으며, 이것이 대량 학살, 강간, 마을 파괴로 이어진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발언과 거짓 선전은 그 후에도 SNS 사용자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 ② 한 지역전문가는 미얀마에서 시작된 SNS상의 거짓뉴스가 로힝야족 난민 사건에 있어서 가장 악의적인 요소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얀마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의 특징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미얀마에서 과학기술은 폭탄과도 같다. 스마트폰 보유자가 급증하면서 SNS의 사용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방법은 모른다. 무엇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또 무엇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 〈다〉

- ①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그 사람을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일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못되거나 또는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이유를 내세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도, 선행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이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우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한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개인주의자와 같이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 〈라〉

인터넷에서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경로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자는 정치적으로 공정할 필요도, 교양 있고 올바르게 건전한 말만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자기의 표현물을 그냥 공개할 수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사서 대신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콘텐츠 제작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미디어 시장과 문화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 혹은 정치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도 영위하고자 하는 1인 미디어들에게 이러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심의, 즉 내용 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경직시킨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방송과 달리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크리에이터나 1인 미디어들이 품위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정하게 말해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제 1**

뉴미디어의 특징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사례를 참고하여 뉴미디어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서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다>의 ①과 ②의 관점에서 뉴미디어에 관한 제시문 <라>의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각각 서술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다>의 두 관점 중 하나를 택한 후, <보기>의 사례를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분류하고 각각의 이유를 쓰시오. (900±100자)

**<보기>**

- (a)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유럽의 청소년들이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를 SNS에 올렸다.
- (b) 어떤 유명 연예인이 아프리카에서 사냥한 동물 사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 (c) 여섯 살의 유명 어린이 1인 미디어가 10kg이 넘는 대왕문어 먹방\*을 선보였다.

(\* 먹방: 먹는 방송)